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인천시 10개 기관과 협약

02 이모저모

카자흐스탄 난소암 환자
“치료에 감사” 편지

03 이모저모

몽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건강 되찾아

04 유튜브를여다보기

유방암 방사선 치료
마커리스 소개



가천대 길병원, 암생존자 통합 관리 위해 인천광역시 및 지역 10개 기관과 맞손

암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가천대 길병원, 지역 10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중심으로 암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30여 년간 어린이 461명에 새생명

가천대 길병원은 6월 몽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5명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수술하고, 완치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2년부터 해외 저개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누적 461명)를 초청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환자경험평가 ☒

“**항상 그랬다**” 응답이
큰 힘이 됩니다



환자경험평가란 입원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조사하는 평가

2025년도 평가 기간 : 8월~12월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천대 길병원 운영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국 지자체 최초, 암생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민·관 협약



△ 암생존자와 함께하는 바른 걷기 행사(5/30)



△ 암생존자 대상 맞춤형 운동처방(6/9)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인천권역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와 인천광역시시는 6월 2일 인천시청에서 **암생존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관련 단체 2곳(인천광역시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인천지회)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 치료를 마친 생존자에게 치료 받은 병원과 관계없이 다양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사회복지

사 집중상담, 근력 강화 운동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 신체 건강 프로그램, 심리지지 모임 및 미술·음악 치료 등의 심리 지원, 직업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매월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암생존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 중인 가천대 길병원이 암을 경험한 인천 지역의 모든 암환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난소암 치료 위해 가천대 길병원 찾은 카자흐스탄 릴리야씨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자 대하는 모습에 감동” 편지

난소암 수술, 수술 후 항암치료, 7월부터 다시 항암치료 예정



카자흐스탄에서 난소암 치료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한 **릴리야 샤이 마르다노바** (사진 왼쪽 두 번째)씨가 치료 과정에서 받은 감동을 장문의 편지로 전해왔다. 릴리야씨는 난소암 4기 환자로, 암 치료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여성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

원을 추천받게 됐다. 올해 3월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해 다학제 진료를 시작으로 3번의 항암치료 및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 몇 번의 항암치료가 더 남아있다.

릴리야씨는 수술 후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카자흐스탄에는 ‘고통을 나누면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길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가 혼자서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산부인과 이광범 교수, 종양내과 김영생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물론, 치료 전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준 국제의료센터 코디네이터, 수술 후 집중치료실과 병동 간호사들, 병실 청결을 담당해 준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환자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릴리야씨는 끝으로 “박애와 봉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병원에 감사드리며, 국제진료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해외 환자들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고 특별하다”고 말했다.

몽골 어린이 5명 가천대 길병원으로 초청, 무료 수술 수술로 완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 몽골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 중인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창휴 교수와 의료진들

올해 다섯 살이 된 몽골 소녀 난딩엘덴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이미 몽골에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 개존증 등 복합 심장질환은 쉽게 치료되지 않았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가벼운 감기도 폐렴으로 악화되길 여러 번일 만큼 몸이 약해 유치원에도 가지 못했다.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지만 몽골 현지 의료 수준 및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

로 사실상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난딩엘덴에게 올해 4월 치료 기회가 찾아왔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봉사단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몽골 현지를 방문한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시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현지 진료하고 병원으로 초청해 수술하고 있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한 의료봉사단은 심장 정

밀 진단을 통해 수술이 시급한 어린이 5명을 선정, 6월 국내로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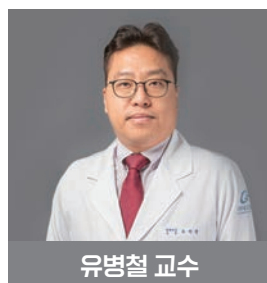
6월 9일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환자 5명은 11일부터 16일까지 차례로 수술을 받았다. 난딩엘덴의 경우 12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점차 건강을 되찾은 어린이들은 24일 밝은 모습으로 퇴원했다.

퇴원 전 가천대 길병원은 병실에서 작은 축하행사를 열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을 비롯해 아이들을 수술하고 치료했던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의료진, 병동 간호사, 사회사업팀은 물론,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치료비를 후원했던 밀알심장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서도 참석해 힘든 치료를 잘 마친 아이들을 격려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설립자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박애, 봉사, 애국' 철학을 실천하고자 1992년부터 해외 저개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17개국 461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무료로 수술하고 새생명을 선물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캄보디아 현지 봉사 및 초청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노인 요양원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대상
노인 응급, 비응급 상황 건강 대처 특강 (6/25)

의료취약지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일환



유병철 교수



전세범 교수

외상외과 유병철-전세범 교수팀
제12회 한태평양 국제외상학회서 우수구연상

대량 수혈과 고령 중증 외상환자 사망률 연구 (6/19)



제16회 질향상(QI) 경진대회 개최
외상응급실 재실기간 단축 등 우수사례 발표

부서별 우수 QI 활동 등 29개 팀 사례 소개 (6/16)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 인천지역암센터 등
폐암 바로알기 건강강좌 개최 (6/12)

폐암 초기 증상과 수술, 방사선, 재발치료 등 강연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 등 산학연 공동연구팀
무선초음파 기반 모니터링 패치 개발

산자부 지원 5년간 개발 예정



가천대 길병원 장애청년 고용기업 가천누리
신생아 퇴원 선물 지원 사업 개시

직접 만든 손뜨개 제품 선물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생존생사의 비밀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박기형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주관적 인지 저하 환자들을 모아서

▶ **신경과 박기형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5/28)
2025 치매보고서 '현재와 미래'

수상한 소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아왔나?

박윤선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일반적으로는 변이주가 자연 발생보다는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약해지는 쪽으로만 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SBS <모닝와이드> (5/30)
코로나19 재유행

아이들 잘 자는 수법

배승민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그런 콘덴츠를 보느라 수면의 길이가 좋아지지 않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뇌 회복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KBS <뉴스> (5/31)
'숯폼' 중독

대장암의 씨앗
유전적 원인

이원석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조절 못 하는 인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외과 이원석 교수**

TV조선 <기사회생> (6/2)
대장암의 씨앗 '용종과 선종'

이길재 교수 | 가천대 김병원 중증외상센터
실고 싶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듭니다

▶ **외상외과 이길재 교수**

KBS <선거특집방송> (6/3)
중증외상센터 발전 방향

이비인후과 선우웅상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건강특독> (6/5.12)
난청의 예방과 치료

수상한 소문
지하철 차단에 '가짜' 발원

고기동
가장 먼저 보려는 신종교수

늦게 발견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점 같은 것에
소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발견됐을 땐

▶ **가정의학과고기동 교수**

SBS <모닝와이드> (6/6)
자외선 차단제 사용

다큐플러스
당신을 살리게 하는 당 독소

김성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내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떨어지는

▶ **외과 김성민 교수**

JTBC <다큐플러스> (6/8)
당신을 살리게 하는 당 독소

임종식 / 가천대 김병원 감염내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하는
비교적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 **감염내과 임종식 교수**

KBS <재난방송센터> (6/8)
말라리아 급증

함승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직업·환경 내 손상·질환 다루는 과목

▶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현 교수**

KTV <생방송 대한민국> (6/11)
일터와 환경을 건강하게

서희선 교수
가천대 일대 가천의학과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13)
수분 부족 신호

수상한 소문
양치 후 가글이 착색 유발?

이지영
가천대 일대 가천의학과

유익한 세균까지 사멸시키는 바람에
유해한 세균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 **치과 이지영 교수**

SBS <모닝와이드> (6/13)
양치 후 가글이 착색 유발?

조진용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마취가 풀린 다음에 붓고 피 나고 아픈 것
이것은 거의 항상 동반되는 거라서

▶ **치과 조진용 교수**

TV조선 <인생의 역전> (6/18)
구강 내 세균

정욱진 교수
가천대 일대 가천의학과

▶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19)
건강한 약 복용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첨단 마커리스를 이용한 유방암 방사선 치료

😊 방사선종양학과 성기훈 교수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몸에 그려놓은 조준선이 지워져선 안되기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마커리스 기술을 도입하여 별도의 표식 없이 샤워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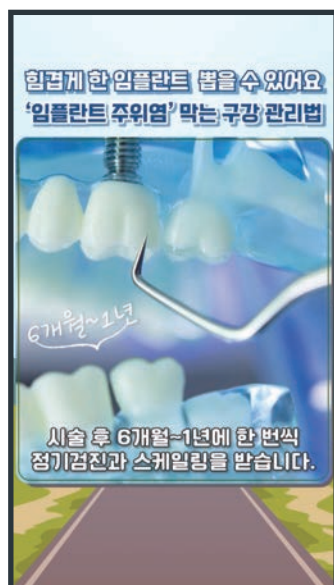
임플란트 후 구강관리법

😊 치과 이지영 교수

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 관리법에 대해 치과 이지영 교수가 설명합니다.



영상 바로보기



미숙아 정맥주사는 내가 최고!

😊 신생아집중치료실 황미남 책임간호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섬세한 피부와 얇은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미남 책임 간호사는 안전하게 미숙아의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는 달인입니다.



영상 바로보기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재에서 전통문화 체험·만찬 등 유학생 소속감과 애교심 다져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6월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학생들은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산부인과 기념관 등 재단 주요 시설을 견학한 뒤 가천재로 이동해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만찬에 참여했다.

가천재에 도착한 유학생들은 전통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살린 가천재를 둘러보며 전통 건축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했다. 가천재는 가천문화재단이 전통 예절 교육과 차문화 체험, 전통의학 전시를 위해 건립한 전통 한옥 교육·전시관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참여해 지은 건축물이다. 1부 행사에서는 총장 환영사와 한국차문화협회 시연, 유학생 감사편지 낭독, 국가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미얀마 유학생 수웨이타씨(21·여)는 모국 지진 피해 장학금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감사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전했다. 가천대는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와 관련, 가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 총 1억2300여 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가별 전통공연에서는 유학생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자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노래를 선보였다. 몽골 유미 학생(32·여)은 불교 철학과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울려킨 차나르'를 불러 관객의 마음을 울렸으며, 미얀마 미야윤모 학생(21·여)은 이별의 슬픔을 담은 전통가요를 불렀다. 베트남 유학생 6명은 전쟁 속에서도 아기가 무사히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사랑 노래를, 마지막으로 중국 사사이(24·여), 유양 학생(24)은 춘추시대 월나라 여인의 사랑을 담은 고대 가요 '월인가'를 선보였다. 이어진 2부 만찬에서는 뷔페식 식사가 제공됐으며, 유학생들은 자국 전통무용과 한국 가요, 가곡

공연 등 다양한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이어 한국이나 가천대에서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내 마음 속 편지' 낭독 이벤트, 기념사진 촬영 등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여러분은 가천대의 소중한 가족이자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재"라며 "가천재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

가천대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인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현재 학부와 대학원, 한국어교육센터를 포함해 6,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가천대 교수 십시일반 기탁, 제자들 '따뜻한 아침밥' 됐다 매일 400여명씩, 3년간 13만 8천여명에 '사랑의 한끼' 제공



가천대학교는 2023년부터 재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해 하루 평균 400명씩 캠퍼스 학생식당을 이용,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가 약 13만 8,000명이다.

이 사업은 가천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더해 운영된다. 학기 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식사는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 학생식당(180명), 제3학생생활관 학생식당(140명), 메디컬캠퍼스 학생식당(80명) 등 세 곳에서 오전 7시 30분(메디컬캠퍼스는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제공된다. 아침 식사가격은 2023부터 2025년까지 한 끼 4,000원~5,000원으로, 교수들이 기탁한 기금(1,000~3,000원)과 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1,000~2,000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각 1,000원)의 지원으로 학생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천대 교수들이 지원하는 기금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자발적으로 모아온 장학기금으로, 현재까지 총 9억 여원을 조성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9,000만 원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 수는 2023년 약 5만 3,000명, 2024년 6만 명, 올해에는 현재까지 2만 5000명이 이용한 것을 비롯해 약 6만 1,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학생증가로 사업에 투입되는 총 지원금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약 1억 6,000만 원, 2024년 2억 4,000만 원, 2025년에는 약 2억 4,8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달의 환자경험 우수상



우수교수

혈액내과 윤병우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석인 교수

산부인과 이승호 교수

입원 환자 경험평가 1등

회진알림톡 전송율 우수

회진알림톡 전송율 우수

우수병동/부서

인공 116병동

암78병동

암148병동

인공166병동

외래간호2팀

입원 환자 경험평가 1등

입원환자경험평가 최고 등수 향상

입원환자경험평가 최고 응답율

입원환자경험평가 성적우수 2관왕

환자경험 활동 우수

고객의 소리



안과 김예원 교수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수술 후 경과 설명이나 퇴원할 때 회진까지 부족한 게 없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병동까지 휠체어를 밀어 데려다주셨다고 어머니가 감사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감동시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00님



신경외과 오한산 교수

어려보이는 인상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셔서 정말 믿을 수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나오셔서 수술 잘 되었다고 하실 때 보니 신고 계신 신발이 온통 붉은 빛이더군요. 얼마나 치열하게 수술하셨을까, 감히 그 고마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맹00님 보호자



응급센터 김승관 간호사

기나긴 투병 생활 끝 퇴원하게 되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신경 써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요청해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김 간호사님을 비롯해 병원 모든 의료진분들 건강하시고 치료 잘 받고 갑니다.

박00님 보호자

친절 우수 직원

2025년 5월 3주차 ~ 6월 1주차

부서 I (본)5B병동, (본)7B병동, (본)8A병동, (암)158병동, (암)78병동, (응)10층병동, (응)9층병동, (인)116병동, (인)136병동, (인)146병동, 가정의학과 외래, 내과계집 중치료실3, 신경외과중환자실, 심혈관낮병동, 응급실, 응급의학과

진료부 I 가정의학과 서희선, 최수정 산부인과 오수현 성형외과 김유진 안과 김예원 외과 김진욱 외상외과 현성열 이비인후과 이주형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정형외과 이정은 통합내과 김유민, 라한나 혈액내과 이재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경선영

간호본부 I 수술간호팀 이현화, 최경진 외래간호1팀 김은희, 박현주 외래간호2팀 성기영, 손유희, 최상기, 최인혜 외상외과 김민준 입원간호1팀 강선희, 류경, 박지민, 오지현, 이세희, 정영환 입원간호2팀 김다현, 김성옥, 김승관, 김영진, 김유리, 박관희, 변민지, 변애자, 성지은, 송민지, 염은선, 오윤경, 윤나빈, 이소희, 이수정, 이원이, 이주영, 이혁주, 임서윤, 장은빈, 정은영, 최수지, 최은진, 최창순 입원간호3팀 강승연, 고혜원, 김동민, 김보라, 김소정, 김수빈, 김연주, 김은진, 김현송, 박미정, 박인미, 박지혜, 박하연, 서한솔, 유혜림, 이미희, 이채은, 정승아, 주혜민, 홍지수 중환자간호팀 김군자, 이채림 특수간호팀 강지우, 박정은 내분비내과외래 김현아 가정의학과외래 장애헌 이비인후과 지예림

진료지원/행정부 I 재난방재팀 강미선, 박경미, 장혜숙 원무팀 한지수

모바일로 가천대 길병원을 만나세요!

가천대 길병원이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아름다운 샘'은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최근 소식부터 의료진 동향, 고객 감동 사연 등
다양한 소식을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모바일 소식 보기 방법

- 1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가입시 '소식 받기' 클릭
- 2 QR코드로 입장하기



기부는 사랑입니다

박OO(남, 50세)님은 결혼 후 슬하 1남 1녀를 둔 가장입니다. 과거에 일용직 등으로
근로하기도 하였으나 당뇨와 당뇨 합병증,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을 받게 되면서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해졌고 이후 국가에 생계지원을 요청하여 수급자로 선
정된 후 정부지원 받아 생활하고 있는 취약 가정의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그동안 당
뇨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 당뇨
병성 막망병증, 상세불명의 황반변성, 백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
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근로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자활근로에 참여 하며 소득 활동
하고 있으나 생계 지원금과 자활근로 소득은 환자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의 생활비
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병원 사회사업팀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 하게 되었고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 하였습니다.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했지만 비용 마련
을 위한 자구책이 전혀 없었기에 의료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러나 질환 기준의 제한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고 다른 민간
후원기관 연계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 사회사업팀 기금을 연계한 의료비 지
원을 신속하게 진행 하였으며 환자분은 병원의 지원을 통해 계획된 치료를 무사히 마
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사회사업팀으로 기탁된 기부
금은 경제적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국가, 지자체 기관의 의료비 지원사
업에 대상이 못하는 의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치료비를 돕기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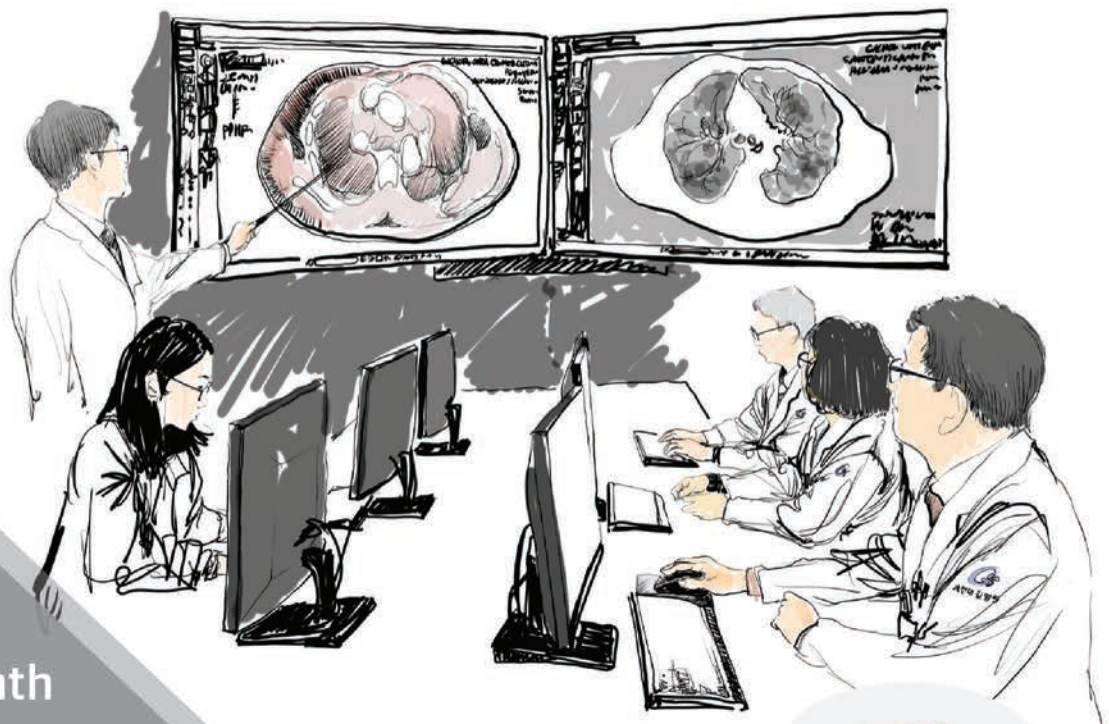
그림 | 응급집중치료실 오영준 간호사

암센터 다학제 진료실



이달의 순간

The Moment of Month



● 암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진들이 논의하는 순간

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진료과의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적의 치료계획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논함은 물론, 복잡하고 고도화된 암치료를 다각적으로 접근해 최상의 치료결과를 제공합니다.

